

內需景氣論

李 甲 燮
 〈成均館大學校 教授·經博〉

1

우리 경제를 남비經濟로 比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經濟도 남비처럼 밀이 얇고 금방 뜨거워지는가 하면 또 금방 식는 特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經濟는 그저 아무 남비나와도 같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特性을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납작남비와 같은 것으로 비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 최근 몇달 동안의 景氣轉換樣相은 마치 우리 經濟가 납작남비經濟임을 잘도 證明이나 하는 듯하다. 어쩌면 그토록 오랫동안 돌아설 줄 모르던 景氣가 모처럼 恢復의 氣勢를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어느 틈에 景氣는 好況을 달리고 있고 過熱化를 경계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말이다. 작년 6월까지만 하여도 0.8로 맴돌던 景氣豫告指標가 작년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여 금년 1월에는 1.2를, 그리고 3월에는 1.4를 보여주는가 하였더니 6월에는 벌써 1.6을 나타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景氣豫告指標라 하여 절대적인 客觀的 指標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도 作成者의 主觀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만한 것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말하자면 景氣豫告指標가 1.0 이하일 때 不況局面이고, 1.0~1.5일 때 下向性安定勢이며, 1.5~2.0일 때 上向性安定勢, 그리고 2.0 이상일

때 景氣過熱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景氣는 벌써 작년 9월부터 不況을 脫出하였고 지난 4월부터는 上向性安定勢圈에 進入한 것이다. 또 그러니까 이로부터 두서너 달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景氣過熱直前의 상태까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확실한 것은 指標作成에 필요한 期間인 한두달 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景氣는 이처럼 우리들이 미처 깨닫고 認知하기 전에 앞을 달리고 있다. 우리들이 認知하고 判斷하는 景氣의 局面은 항상 한두달 또는 두서너 달 지난 뒤의 局面인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두달 또는 두서너 달 전의 局面을 마치 현재의 景氣인 양 錯覺하고 行動하고 對策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프리트만」이 말하는 裁量政策의 遲滯論이 그대로 通用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事態認知的 능장도 景氣變動의 速度가 아주 더딘 곳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안된다. 事後的으로 認知된 事實과 그 동안에 變化한 事態와의 사이에는 큰 差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작남비로 비유되는 우리 經濟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景氣變動의 速度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認知된 景氣指標와 現實의 客觀的 事態와는 큰 差異가 생기게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兩者가 비슷하기는 커녕 전혀 엉뚱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금년 초까지만 하

여도 景氣는 이미 상당한 恢復過程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不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으며 政策도 景氣浮揚을 위해 애썼던 것이다. 불이 붙었는데도 불이 붙은지 모르고 계속해서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꼴이었다. 그 결과 景氣恢復은 더욱 加速化되고 삼시간에 好況을 치닫게 된 셈이다. 經濟가 不況局面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緊縮政策을 強行함으로써 不況을 더욱 加速化하였던 79년 이래의 이른바 安定化政策과는 너무나 對照的인 것이다.

사실 작년 6·28 活性化措置 이래 금년 초의 몇달 동안에 追求된 景氣浮揚策은 적극적인 것이었다. 長期화된 不況으로부터 한꺼번에 脫出하려는 意圖에서였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돌아서고 있는 景氣가 加速度的으로 急昇하였고 마침내 부분적으로는 好況末期에나 볼 수 있는 사치성消費, 호화관消費, 非住居用消費性建築投資의 성행과 같은 現象들이 일기까지 한 것이다. 指標上景氣는 아직도 景氣恢復의 初期段階인데도 南比經濟는 끊기 시작하여 금방 好況絶頂期에 도달하고 好況末期의인 現象마저 드러내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取해진 것이 바로 최근에 와서의 通貨緊縮政策이라 할 수 있다. 불과 1년 전에만 하여도 그토록 열심히 景氣浮揚을 위해 通貨를 마구 增發하던 것과는 또 너무 曄曄의 사태가 된 셈이다.

2

우리 經濟가 南比經濟라면 79년에 시작하여 82년 上半期까지 지속된 長期不況은 얼핏 보기에도 설명이 좀 곤란한 현상이다. 南比經濟라면 長期不況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不況이 찾아와도 이를 금방 물리칠 수 있고 곧바로 好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 南比經濟다. 그러니까 南比經濟는 약간의 投資增大로 景氣를 刺戟할 수 있고 적극적인 景氣對策으로 長期不況을 능히 打開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79년 이래의 不況은 그야말로 일종의 長期

沈滯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결코 南比經濟의 現象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따라서 長期不況의 지속은 우리 經濟가 南比經濟가 아님을 證明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經濟를 南比經濟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79년 이래의 長期不況은 景氣浮揚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된 사태가 아니라 景氣가 下降하기 시작할 때 緊縮政策을 썼기 때문에 不況이 加速化하였고 또 不況이 한창 進行하고 있는데도 物價安定을 이유로 不況이 放任되었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冷却된 상태에서 그냥 放置되었기 때문에 끊지 않았고 뜨거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그것도 長期間에 걸쳐 放置되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政策은 南比經濟의 特性을 살리지 못하고 不況에 임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經濟가 이제는 南比經濟論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단숨에 好況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어찌서 이것이 가능하였으며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景氣가 저절로 轉換期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여기에 더욱 적극적인 浮揚策을 강구하였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短期間內에 급속한 上昇過程을 보여준 것은 역시 우리 經濟의 밑이 얇기 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經濟全體의 規模面에서나 이를 구성하는 個別産業 또는 個別經濟活動部門의 규모면에서도 다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總體經濟의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國民總生産의 규모와 1人當 所得水準의 상대적 低位性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經濟規模가 큰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需要의 變動으로서도 보다 큰 供給側의 反應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약간의 需要擴大要因도 그것은 곧 供給不足 사태를 일으키기 일쑤였고 過熱需要를 결과하기 마련이었다. 지난날의 高度成長도 바로 이런 까닭으로 결과된 것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過熱需要로 인한 不安定性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個別部門이나 個別産業面에서도 우리 經濟는

市場이 작기 때문에 總體經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需要增減으로서도 供給不足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甚한 供給超過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불과 몇달 전만 하여도 需要停滯로 在庫가 산더미처럼 쌓이던 것이 불과 몇달 사이에 製品이 달려 몇달을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는 일부 耐久消費財購入의 경우도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總體經濟 규모의 過小性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個別産業의 市場규모는 일반적으로 매우 작고 內需産業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世界經濟의 沈滯로 輸出이 상대적으로 不振할 때 國內景氣의 恢復이 곧 內需産業 또는 內需部門의 過熱需要를 前提로 하여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 것이 된다. 個別産業이나 個別部門의 供給能力은 뻔한데 需要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市場은 순식간에 過熱化現象을 빚어내게 될 것이다. 실지로 이와 같은 현상은 景氣恢復이 본격화한 지난 2/4 분기의 國民總生産動向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4 분기중의 동향을 보면 景氣恢復을 主導한 것은 消費需要의 급속한 增大와 建設景氣의 지속, 서비스部門의 계속적인 成長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있어 總消費增加率は 比前年 8.0%에 이르는 것이었고 지난해 同期의 2.4%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큰 數値인 것이다. 이에 따라 製造業의 生産도 크게 늘어났고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部門의 成長率도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만약 輸出增加率이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을 회복하고 投資率이 正常水準에 이르기만 하면 經濟는 영락없이 지난날의 高度成長經濟를 그대로 再演하는 것이 될 수 있고 景氣는 이미 過熱狀態에 휩싸여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輸出需要가 아직까지는 前과 같지 못하고 投資活動도 本格化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過熱狀態에는 아직 이르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급속한 景氣上昇과 好況의 擴散은 또 언제 投資需要의 增大를 불러 일으킬는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밑이 얇은 남비經濟의 限界와 不安定性을 實感하게 될 것이다.

3

經濟가 不況下에 놓여 있을 때 政策의 課題는 어떻게 하면 不況으로부터 벗어나서 好況을 유지하느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景氣恢復을 위해 需要刺戟策을 써 왔던 것이지만 世界經濟의 沈滯로 輸出이 如意치 않는 상황에서 取해진 손쉬운 方法은 역시 國內需要의 刺戟策이었다. 지난해의 6·28 措置가 이를 상징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建築投資와 企業設備投資의 活性化를 통해 景氣를 북돋아 보려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建築投資와 生産設備投資를 근간으로 한 內需景氣의 振作策이었다.

그러나 이로써 結果된 사태는 生産設備의 擴張을 위한 固定投資를 중심으로 한 內需景氣의 恢復과 上昇이 아니라 消費와 서비스需要의 增大와 다분히 非生産的인 建築投資의 擴大를 줄거리로 한 內需景氣의 급속한 上昇이었다.

물론 그와 같은 政策意圖는 처음부터 誤算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生産物에 대한 需要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遊休施設이 아직도 완전히 利用되기도 前에 固定投資의 增大부터 劃策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政府投資라면 모를까 적어도 民間投資일 때는 바랄 수 없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民間投資의 增大는 遊休施設이 없어지고 生産物에 대한 需要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民間企業의 負債比率이 過大하여 企業이 財務構造의 不安한 狀態에 있을 때는 더욱 바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消費增大, 서비스需要增大, 建築活動增大 등을 중심으로 한 內需景氣의 活況은 비록 政策意圖와는 어긋난 것이라 하여도 도리어 그것이 당연한 政策的 歸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景氣恢復을 위한 적극적인 投資活性化對策은 投資擴大가 아니라 消費需要의 급속한 增大와 이를 中心으로 한 內需景氣

의 擴散을 결과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投資增大를 誘發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投資過熱化로 달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過熱化過程은 미리 回避되어야 할 것이다. 物價安定을 위한 노력도 공연히 不況이 한창일 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上昇過程에서 진지하게 追求되어야 하는 것이고 企業의 構造的 不實化를 막는 노력도 全般的인 危機에 처해 있는 不況期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景氣上昇期에 행해져야 하며 또 실제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投資의 지나친 增大는 경계되어야 하고 또 消費性需要의 增大도 저절로 制限的인 것일 수밖에 없다. 消費需要의 급속한 증대를 放置하는 한 결국 投資需要의 증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남비經濟는 過熱化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더우기 우리의 경우 內需景氣의 지나친 好轉은 그것이 投資를 중심으로 한 것이든 消費를 중심으로 한 것이든간에 輸入의 급속한 증대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뜻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말하자면 설령 우리 經濟가 남비經濟처럼 過熱化의 우려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國內需要의 높은 輸入依存性을 생각한다면 內需景氣의 급속한 擴大는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또 內需增大를 통한 景氣上昇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輸入抑制의 노력만큼이나 內需增大의 억제를 강조해야 할는지 모른다. 이것은 貿易赤字幅이 크고 輸入依存도가 높은 나라에서 內需景氣가 直面하는 일종의 宿命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러기 때문에 輸入依存도가 낮은 內需部門, 즉 資源自給도가 높은 內需部門은 이와 같은 制限과 緊縮의 대상에서 除外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4

우리 經濟의 밑이 얇고 輸入依存도가 높기 때문에 內需景氣를 緊縮해야 한다는 것은 자칫 우리 經濟의 成長을 주로 海外需要의 增大에

말기는 일이 되고 종래와 같은 輸出드라이브政策에 말기는 일이 될 것이다. 輸出部門에서도 남비經濟 특유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內需部門에 비해 그것은 貿易收支政策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當장의 景氣浮揚이나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이밖에 달리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成長方式의 追求는 결국 우리 經濟를 높은 貿易依存的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內需의 自給率을 형편 없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된다. 그 결과 內需部門은 계속해서 남비經濟처럼 밑이 얇은 상태를 免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景氣浮揚을 위해 또는 好況의 지속을 위해 함부로 內需景氣를 복돋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덮어놓고 海外依存도를 높이는 과정을 계속 追求할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태에서 成長을 停止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는 없다. 우리도 하루빨리 先進經濟의 대열 속에 끼어들고 잘 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높은 成長을 追求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길을 탈없이 걸어보자는 것뿐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短期的으로는 內需增大보다도 輸出增大를 통해 더욱 成長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나 長期的으로는 역시 貿易依存도를 높이지 않고서도 높은 經濟水準을 달성할 수 있는 內需部門의 擴充을 追求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와 같이 90%를 웃도는 높은 貿易依存도를 계속하여 더욱 높이면서 經濟成長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도 貿易依存도를 높이지 않고서도 높은 成長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長期的으로는 內需部門의 擴充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內需의 振作으로 景氣를 복돋아보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金融緊縮政策은 단순한 通貨供給의 抑制를 벗어나서 通貨需要의 抑制를 가능케 하는 名實相符한 緊縮政策으로 바뀌어야 마땅할 것이다. ♣